

광주서 전국 최대 규모 '사회적경제박람회' 열린다

광주시, 12~14일 김대중센터서 121개 부스 상품·체험관 등 운영 우수기업 특별관·추석선물 판매 '사회적가치 이해·체험기회 제공'

광주에서 전국 최대 규모의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3회 광주 사회적경제박람회'를 개최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사회단체, 유관기관 등 민관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사회적경제, 광주를 이롭게! 내☆일을 빛나게!'를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광주기업 78개, 전국 기업 15개, 정책홍보관 22개, 추석선물전, 상담관 등 전국 최대 규모인 121개

부스를 운영한다. 개막식은 12일 오후 2시 열리며, 환영사, 축사, 사회적경제 유공자 표창, 퍼포먼스, 무대공연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또 추석선물 특별판매전, 학술행사, 부대행사, 시민참여 프로그램, 이벤트 등 다채롭게 준비했다.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은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 상품과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다. 또 부산, 인천, 대구, 강원, 전북, 장흥, 제주 등 7개 지자체 우수기업 초청 특별관을 마련, 다양한 지역특산품을 할인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예쁜손협동조합(가방·수공예품), 씨튼장애인재활센터(파이·베이커리), 디자인숨(홍보물품), 무지개공동회엄하우스산업(화장지), 엔아이디(인쇄출판) 등 78개의 광주기업들이 참

여한다.

또 부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섬유향수, 친환경비누),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꽃새우, 보리새우), 대구 착한제품협동조합(홍게맛장소스), 강원 참좋은식품(오징어순대), 전북 임실생고을영농조합(치즈, 유제품), 장흥 사회적경제네트워크협동조합(김부각), 제주 금악협동조합(흑돼지소세지) 등 7개 지자체에서 총 15개 기업이 참여해 지역특산품을 할인 가격에 선보인다.

학술행사는 12일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의 '사회적경제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전국광역사회적경제지원센터협의회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사회적경제 연구' 등이 진행된다. 13일에는 광주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협의회 '사회연대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제안적 모색', 사회적협동조합살림 '2024 별별포럼 SE기업가

정신', 광산구사회보장협의체 '지속가능 사회적일자리 협력과 함의' 등이 열린다. 14일에는 조선대학교원 사회적경제학과 원우회 '광주사회적경제 인재양성' 등 다양한 포럼과 워크숍이 개최된다.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마련된다. 시민 아카데미 '가치톡톡 플러스', 청소년 아이디어 발표대회, 청소년 사회적경제 골든벨,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ESG·마을기업 특별전시, 무대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예정이다.

광주시는 박람회 행사 기간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식품관에서는 물컵, 식기류 등 다회용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개인입 소지자에게는 음료 구매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다양한 기념품과 박람회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급 등 풍성한 현장 이벤트가 마련된다.

사전 이벤트로 오는 11일까지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누리집(<https://gjsec.kr>)을 통해 박람회 홍보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 등록된 선착순 500명에게 박람회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쿠폰이 제공된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5만원 이상 구매하면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5000원 쿠폰을 현장에서 증정하는 이벤트도 열린다.

신장호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제3회 광주사회적경제박람회를 통해 지역 상생 경제에 앞장서고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과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가치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전국 최대 규모로 풍성하게 준비했다.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방문을 바란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전남도, 중기 시설자금 융자 지원 확대

8년간 최대 20억 한도 저금리 하반기 신청 완화·온라인 접수

전남도가 중소기업 제조업체 대상 공장 증·개축, 설비구입 등 시설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융자지원을 올 하반기 확대 모집하고, 기업 편의를 위한 온라인 접수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시설자금은 전남도에서 마련한 기금 630억원으로 구성됐으며, 8년간 5억원에서 20억원 한도로 시중 은행에서 저금리(3.0% 변동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제조업 전업종 30% 이상으로 공장등록했거나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이다.

기존 시설자금 융자지원 대상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 취급

업의 경우 타 업종과 달리 올 상반기까지만 접수를 받았으나, 하반기에도 접수가능하도록 완화했다.

또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 기업이 전남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을 직접 방문해 접수토록 했으나, 지난7월부터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토록 개선했다. 전남도는 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개편해 운영 중이다.

시설자금 융자지원 공고 내용 확인 및 온라인 접수는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누리집(www.jinfund.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6-3753)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1~4)에 문의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광주 동구 전직원 청렴토크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2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화, 세대간 화합과 공감하는 청렴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토크'에서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광주 동구 제공

전남도, '농촌 왕진버스' 사업 주민 호응

13개 시군 54개 읍면서 운영 농업인 1500명에 의료서비스

전남도와 시군·농협이 협업체 전남 곳곳을 누비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지역 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는 의료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 여건과 농번기 고강도 농작업으로 피로를 호소하는 농업인의 건강관리 수요가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다.

'농촌 왕진버스' 사업은 지난 5월 전남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작했다. 지자체와 농협이 협업체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찾아가 양·

한방 진료, 안과·치과 검진 등 의료서비스를 하고 있다.

9월 중 농촌 왕진버스는 2일 영암 학산면을 시작으로 4일 고흥 도포면, 5일 여수 화정면과 곡성읍, 6일 고흥 두원면과 해남 화원면, 23일 장성읍, 24일 고흥읍, 25일 함평 월야면, 26일 고흥 포두면과 해남 화산면, 완도 노화읍, 27일 담양 용면, 30일 장성 삼서면 등에서 운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18일 해남 문내면을 시작으로 장흥 용산면, 고흥 풍양면, 도양읍·도덕면 등 13개 시군 54개 읍면에서 운영됐으며 지금까지 해남, 장흥, 고흥에서 약 1500명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활동을 펼쳤다.

해남에서는 농번기에 지친 농업인에게 원기 회복을 위한 맞춤 약 처방으로, 장흥에서는 농업인 근골격계 질환 관리를 위한 물리치료로, 고흥에서는 한방진료와 검안·돌보기 제공 등으로 지역별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농촌 맞춤형 진료를 실시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농촌지역 거주민이라면 고령농, 외국인 계절근로자, 취약계층 등 누구나 사업 추진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정해진 일정에 맞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주민이 농촌 왕진버스 검진을 받도록 홍보와 참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관광공사, 광주비엔날레 성공개최 지원

관광상품 출시·G-페스타 등 추진

광주관광공사가 오는 7일 개막하는 광주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 및 홍보마케팅에 나섰다.

2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광주비엔날레가 올해 창설 3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관광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지원 △G-페스타 협업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방문객 이동지원 등 총 5개 분야에 걸쳐 전사적인 지원과 협업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비엔날레와 연계한 체류형 예술특화여행 관광상품을 3건 출시했으며, 이중 한 상품은 공영홈쇼핑을 통해서도 판매중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광주비엔날레 관람을 포함한 예술여행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또 공사가 운영중인 비짓광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을 비롯한 온라인 사이트와 SNS 채널을 통해 카드뉴스 제작 및 퀴즈이벤트, 숏츠 영상 업로드 등 광주비엔날레 온라인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24 대한민국 미술축제 중 '미술여행주간-광주코스'를 운영하고 미식관광과 광주비엔날레를 연계한 '양림스폰워크'를 진행하는 등 오프라인에서도 광주비엔날레 알리기에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G-Festa 광주' 협업프로그램을 통해 광주 ACE Fair, 맥주축제, 총장축제, 광주김치축제, 서창역새축제, e-스포츠대회 등 18개 행사 주관기관 및 자치구와 함께 공동으로 '원팀 광주' 차원의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해 이달부터 11월까지 '나도 광주로 간다(Go Gwangju, Ditto!)'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관광공사 외국인 SNS 홍보단을 초청하는 여행 후기 및 공유이벤트를 통해 해외 각국의 팔로워들에게 광주비엔날레와 광주 관광을 알린다. 이밖에 공사에서 운영중인 시티투어버스(DRT, 수요응답형이동서비스)를 비엔날레 행사장과 연계한 특별노선을 운영하고, 관광교통패스 발매로 관광객들의 이동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추석대비 코로나 감염 취약시설 점검

요양병원 등 778개소 대상

전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고위험군의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 예방을 위해 감염 취약시설 778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에 나섰다.

감염 취약시설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질병청 8월 4주차 표본감시(전국 220개 의료기관) 잠정집계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발생률은 8월3주차에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감소 추세다.

현재 국내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는 오미크론 KP.3의 점유율이 64.1%이며, 입원환자의 65세 이상에서 65.9%를 차지한다.

고령층이 많은 감염 취약시설은환자가 발생하면 집단감염과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면회와 가족, 지인과의 만남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코로나19 선제적 예방관리가 절실하다.

이에 전남도는 이번 특별점검으로 입소자·종사자·방문객의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신속 진료체계, 환자 관리, 환기·소독·정결상태 등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안내해 감염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